

진흥회 활동

한국 전자산업 세계화 국제 포럼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제주도 KAL 호텔에서 본회 회원사, 한국소재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 주한 외국공관, 해외투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전자산업 세계화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세계화 전략 포럼은 새로운 무역질서 속에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방향제시와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이해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유망 국가의 상무관들로부터 각 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최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국내 주요기업의 해외투자 전문가로부터 투자계획 수립부터 현지 경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연사로는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환경창조와 비전 만들기, 통산부 박인구 과장이 한국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재경원 방영민 과장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제도를 설명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3개사가 자사의 해외투자전략을 소개했다.

CPU 관세인하 건의

본회는 지난 8월 22일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5개 단체 공동으로 컴퓨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컴퓨터 보급확산, 중소컴퓨터업체 생산활성화 등 컴퓨터산업 발전을 위해 CPU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재경원 등 관계당국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서 「CPU는 향후 10년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는 결국 국내 컴퓨터 가격을 높여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컴퓨터 업체들에 대한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율이 높고 CPU의 단가가 높아 밀수의 한 요인이 되고 미국 통상압력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컴퓨터산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절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CPU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8%로 여기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할 경우 18.8%에

이르는 데 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CPU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컴퓨터산업 육성과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특히 컴퓨터 수요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정부가 우려하는 세수감소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CPU의 국내 수요는 지난해 225만개에서 올해에는 250만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전량 인텔 등 미국 업체들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업계 해외투자 현황 조사

본회는 지난 8월 12일 국내 전자업체들의 해외 투자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동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자업체들이 일본의 아성인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에 뒤늦게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일본 전자업체들은 북미·유럽 등 선진국지역으로 투자지역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전자업체들이 최근 투자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일본 전자업계에 비해서는 역부족인 형편이다.

국내 전자업계의 해외진출(해외생산법인에 대한 투자허가기준)은 작년말 기준으로 443건에 달했으나 일본업계의 958건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전자업계의 아시아 진출은 347건으로 총 전자업계 해외진출의 80%를 넘어 국내 전자업계의 해외진출이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업계의 對북미 진출은 50건, 對유럽 진출은 36건으로 각각 11.2%, 8.1%에 머물렀으며 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은 2~3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일본 전자업계는 對아시아 진출이 전체 958건의 60% 정도인 596건에 달해 對아시아 편중도가 국내업계에 비해 낮았으며 유럽지역 및 북미지역에 대한 진출도 각각 15~20%선에 이르고 있다.

또 국내 전자업계는 90년 43건에 이어 93년 89건, 94년 164건 등 90년대이후 해외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90년 들어서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본 전자업계가 80년대말까지 지속적인 엔고에 따라 이미 해외생산망을 구축, 해외 진출이 주춤한 반면 국내업계는 고임 등의 여파로 근년들어서야 생산기지 이전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전자업계의 해외진출을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전분야가 100건, 산업용전자가 77건 그리고 전자부품이 266건인데 비해 日本은 엔고로 인해 자국내 생산 및 조달이 어려워진 전자부품분야가 563건으로 58.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가정용전자(가전)가 285건, 그리고 산업용전자가 1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업계는 작년말 현재 25개의 해외연구개발 법인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업계는 북미지역에 47개, 아시아지역에 18개, 유럽지역에 18개 등 총 87개의 해외연구개발 법인을 보유, 해외 기술개발투자 부문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가전제품 구매성향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2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가전제품 구매성향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LG전자, 팍준식 과장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본 구매성향 조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앞으로 동 조사를 할 경우 외제품 선호시 선호 이유, 선호 가격대 등 품목별로 상세하게 조사해야 하는 방향도 검토됐다.

또한 신가전분야와 첨단제품에 대한 조사도 추가하는 등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산품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관한 개선방안 건의

본회는 지난 8월 24일 행정규제완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자재 등의 전자제품을 비롯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의 제도를 종합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청와대 비서실에 건의했다.

검토내용을 보면 전기용품 형식승인, 전기통신기자재 형식 승인, 전자파 장해 검정, 무선설비 형식 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 증명,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 등이다.

따라서 본회는 국가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한 형식검정 및 승인 등에 관한 제도의 통합 운영방안을 내용으로 건의하게 된 것이다.

컴퓨터분야 연구개발용 샘플수입 요령 개선 건의

본회는 지난 8월 1일 컴퓨터 및 관련 부분품 연구개발용 샘플의 5개 이상 수입시 전파연구소에서 전자파 장애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 샘플의 전자파 장해검정에 따른 비용부담 및 시간지연으로 연구개발 및 시장 적기 출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컴퓨터분야 연구개발용 샘플 수입시 전자파 장해 검정 면제 수량을 10개로 완화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자파 장해검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신제품 적기 출하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됐다.

진흥회 8월 주요 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8. 8	전자산업 증장기 수요예측 자문위원회	기 획 과
	자기미디어협의회 임원회의	부 품 과
8.11	CATV용 컨버터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포함 건 의	산 업 전 자 과
8.18	가전제품 재활용사전 평가제 도 개선방안 회의	환 경 과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8.18	무선호출기 업계회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실 무자 회의	산 업 전 자 과 산 업 전 자 과
8.21	가전제품 소비자 구매성향 조사 결과 설명회	가 전 산 업 과
8.25	음극선관 기술표준화 위원회 FBT 표준화 위원회	형 명 등 록 과 부 품 과